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김승민

천안 연암대학 친환경예과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Symbolizes of the Joseon Dynasty Flowering Plant

Kim, Seung-Min

Department of Eco Friendly Horticulture, Cheonan Yonam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ancient paintings and literatures, by examining Flowering Plants and drawing their cultivating methods, to provide a ground of utilizing them on the modern landscaping.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766 pieces of ancient paintings(6 garden paintings and 760 folk paintings) which were available and had value as literatures, and 8 of ancient literatures were intensively examined. Main results extracted from them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used Flowering Plants in Joseon Dynasty were *Prunus mume*, *pyllostachys*, *Nelumbo nucifera*, *Chrysanthemum morifolium*, *Musa basjoo*, *Rosa* spp., *Rhododendron mucronulatum*, *Paeonia lactiflora*, which appeared 11 times to 16 times in total. Next frequently(4 times to 8 times) used Flowering Plants were *Gardenia jasminoides*, *Punica granatum*(8 times), *Dianthus chinensis*, *Vitis vinifera*(7 times), *Orchidaceae*, *Syringa velutina*, *Impatiens balsamina*, *Hemerocallis fulva*, *Celosia cristata*, *Hibiscus Syriacus*, *Rhododendron indicum*(6 times), *Rhododendron*, *Rhododendron obtusum*, *Acorus calamus*, *Althaea rosea*, *Kerria japonica*, *Citrus junos*(5 times), *Hibiscus mutabilis*, *Lychnis cognata*, *Calendula officinalis*, *Begonia rex*, *Helianthus annuus*, *Papaver* spp., *Narcissus tazetta*, *Daphne odora*, *Hosta plantaginea*(4 times).

Second, usage of the Flowering Plants in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character building and horticulture for pleasure through positive, scientific approach attempt. It suggests that there might have been classes in the use of them and we can estimate which plants were particularly preferred.

Third, in the symbolism of the usage of Flowering Plants,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case of representing integrity, gentleman, honesty and nobility and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The case of representing Taoism's thought of hermit and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 The case of representing wish on wealth and prosperity. So if we make a good use of it, we may draw a meaning of cultivation of Flowering Plants from it. This is your target audience or the good luck to all he plants is aimed at, you can see the occurred.

Fourth, the Joseon Dynasty was the use of flowering plants are the line of rain wanted to be more consistent with the spirit world. This is shown as a symbol of their ancestors. Joseon Dynasty was used, resulting in a kind of flowering plant and is not a subjective judgement criteria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side when interpreting the Joseon Dynasty flowering plants to take advantage of the landscape of the area will widen in scope.

Keyword : A flowering plant, Garden, Plant, Folk Paintings

[†] **Corresponding author :** Kim, seung-min, Department of Eco Friendly Horticulture, Cheonan Yonam College, Chungnam 331-709, South Korea Tel.: +82-10-5373-0432, E-mail: plantseungmin@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옛 그림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을 재료로 궁궐정원과 민가정원에 나타나는 지피식물의 이용특성과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재 지역 및 현대 조경공간에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 고문헌과 옛 그림에서 출현한 화훼식물의 출현빈도는 매화, 연꽃, 모란, 국화, 파초, 영산홍, 장미, 진달래, 작약 등이 10회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비교적 출현 빈도가 높은 식물은 치자, 석류(8회), 패랭이꽃, 포도(7회), 난초, 정향, 봉선화, 원추리, 맨드라미, 무궁화, 철쭉류, 창포, 접시꽃, 황매화, 유자(5회), 부용, 동자꽃, 금전화, 베고니아, 해바라기, 양귀비, 수선화, 서향화, 옥잠화 등(4회)이었으며, 그 외에는 29분류군 총 81종의 화훼식물이 조사되었다.

둘째, 궁궐과 민가에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은 분에 심어 가까이 두고 완상하거나 화단, 화계, 화오, 연못 및 담장주변 등에 주로 식재하였음을 고문헌의 기록과 정원도 및 민화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산홍의 식물재료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진 민가정원의 관련된 문헌(6점)이나 옛 그림(766점)에서 출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대중에게 유통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선시대 화훼식물 상징성은 유교의 절개, 군자, 청빈, 충효사상을 나타낸 경우, 도교의 신선사상이나 불교장생을 나타내는 경우, 민간신앙의 부귀영화나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식물을 덕성함양의 대상이나 기복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시대 이용했던 화훼식물은 선비가 닮고 싶은 이상과 지향하는 정신세계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선조들의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조선시대 이용하였던 화훼식물은 수목종류에 따른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아닌 다양하고 주관적이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해석할 때에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조경공간에서의 활용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화훼식물, 정원식물, 민화

1. 서론

예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대지의 조건과 자연적 변화에 그대로 순응하는 자연자체에 근원을 두었기에 산을 배경으로 집을 지었고 집 밖으로 멀리 보이는 울창한 숲과 시냇가,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정원의 일부로 여기며 자연 속에서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이선, 2006).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된 조선시대의 정원은 풍토적인 측면과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 응축된 자연유산으로서 당시대의 기억과 민족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고 있으므로, 정원에 대한 원형을 파악하여 그 시대의 사회·문화 조류를 대표할 만한 정체성을 고찰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정원문화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근거가 된다(이원호, 2005). 우리나라 옛 선인들의 화훼에 대한 인식들은 문헌과 전통회화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 화훼류를 소재로 하는 화조화(花鳥畵)는 양반계층에서 매·란·국·죽을 즐겨 그린 전통회화와 일반 시민층에서 즐겨 그린 민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옛 그림 속에 꽃그림의 다수가 전해지는 것은 우리선조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한국인의 미의식과 정서 속에는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계층에 따라 어떤 화훼를 즐겨

그렸는지 알아보는 것이 원예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경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박혜성, 2008).

전통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심우경(1989)은 “조경 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식물을 대상으로 상징성과 관련된 식물을 선정하고 고찰하였으며, 이진희(1992)는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 특성 및 조경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 지역 내에 있는 서원중에서 8개소를 선정하여 수목 식재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서원의 식물을 고찰하였다. 또한 윤영환(1993)은 전통 조경수로서의 소나무의 상징성과 배치 이용 연구에서 식재 관련 상징성으로 대나무, 국화와 더불어 은둔을 상징하는 정원 식물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식물의 상징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남아 있는 문헌과 도형사료 또한 부족함으로 전통공간에 적합한 식재대안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식생구조 정의는 서양의 사고방식인 생육형태 그리고 이용의 측면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하부공간의 관상의 대상이 되며 꽃이 피는 관목(花)과 꽃이 피는 풀[卉]을 현재 명칭인 지피식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여진다¹⁾. 이에 각 문화재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상호 연계성

과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지리적 기후대 특징을 반영한 식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전통조경공간에서 이용되어지는 지피 식물의 새로운 범위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정원관련 고문헌 및 옛 그림을 중심으로 당시대의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전통공간의 구성에 있어 역사·경관적 가치를 제고하고 아울러 현대 전통조경공간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선정조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는 기존의 연구된 신상섭과 노재현(2009), 김묘정(2008), 박해성(2008), 강인애(2005), 김용기와 최종희(2004), 이승훈(2009), 이외희(1986)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화훼식물에 관한 문헌자료와 옛 그림의 기록이 남아 있는 1392~1910년의 조선시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문헌 중 집필자의 신분과 학문성에서 대표성과 화훼식물에 관한 사료적인 가치 여부, 궁궐에 관한 편찬기록으로 역사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문헌으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가지는 고문헌을 선정한 결과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8개의 고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고문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은 창덕궁의 식재나 수목에 관한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는 문헌 사료중의 하나로 태종 5년(1405년) 창덕궁을 지은 이 태종 9년(1409년)에 중국 주나라 성황의 공상제를 본 따 궁원에 뽕나무를 심도록 명한 것을 시작으로 수목과 화훼식물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고 있다.

「궁궐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도성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궁궐별로 연혁, 건물의 명칭, 위치, 용도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사료를 통하여 건물 주변의 풍광이 표시되고 있어 그 당시의 경관 해석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사의당지(四宜堂志)」는 홍경호(洪敬謨, 1774~1851)가 지은 것으로 편제는 원서, 당우, 형승, 조망, 화석, 서화, 기완, 으로 구성되는 되는데, 사의당의 연력과 자리 잡기, 주택에 관한 공간구성과 규모, 경관적 의미와 조망, 원림에 도입된 조경식물과 점경물, 그리고 서화 및 기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신상섭, 2011). 이중 화석(花石)편에서는 주거 문화와 지피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되어 있으며, 당시 도성주변의 주거문화와 화훼식물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에 따라 주거공간을 기록한 저술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조선 후기의 상류계층이 경영한 화훼식물 추적에 대한 이미 있는 사료로 판단된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의 사후 10년 되던 해인 1474년에 출간된 화훼 및 원예전문 서적으로 책의 권두에는 당대의 명신이자 대학자이었던 신숙주, 최항 정창손의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김종직과 강희맹의 서문이 실려 있다. 본 서적에서는 저자가 직접 꽃과 나무를 길러보고 난 다음에 저술한 것으로 최화법, 백화기선, 취화법, 양화법, 배화분법, 수장법 같은 재배에 관한 방법과 화훼류의 형태, 특징, 관리 방법, 감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서문과 발문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은 그의 높은 학덕과 함께 당시로서는 매우 휘하게 꽃과 나무를 감상하고 기르는 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으로 사료로서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화암수록」은 유박(1730~1787)이 자신의 화원 백화암에서 화훼 재배체계를 정리한 원에서로서 유박이 오랫동안 꽃을 가꾸고 감상한 결과를 자신의 미학적 기준에 따라 의인화 하고 9등급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특히 “화목구등품제”는 화훼류의 특징과 의미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품격을 달리 됴으로서 화훼류에 대한 전문성이 잘 나타난다.

「지봉유설」은 이수광(1563~1628)이 고문에서 기사 일문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저술로 저자의 의견을 불인 저술로 유업에 대한 정보 등 서양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기도 하며,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 천주교 교리와 교황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천주교 전래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편 지봉유설에는 장미를 비롯한 외래식물이 소개되고 는데, 특히 평론문화가 조경 및 원예적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실생활과 관련한 이수광의 실사구시 정신이 개입된 식물분류 안목이 나타나고 있다(신상섭 과 노재현, 2009).

「산림경제」는 홍만선(1643~1715)가 지은 실용서로 농사·의약 등 농촌의 여러 분야에 걸친 일상에 필요한 지식과 정원 식물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으며, 2권의 “양화편”과 “종수편”에서 화훼식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임원경제지」는 서유구(徐有渠, 1764~1845)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이운지」, 「상택지」, 「예운지」를 중심으로 화목류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수록한 점에서 조경 문화와 조경요소가 집약된 유서로 특징되어 진다.

조선시대 백과사전 관련 서적들의 대부분 성향은 거의 모두 원예 식물 및 농작물 재배방법 등으로만 범위가 국한되며,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유서들이라 할지라도 중국 농서를 초록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환경에 부적합하여 각 분야에서 실용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임원경제지」는 임원공간에서의 생활을 위한 조경공간 조성 및 삶의 방식을 집대성한 한국의 ‘대표 조경기술서’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규섭과 이재근, 2014). 이러한 고문헌들은 전통공간에 대한 수목, 화훼식물 등의 구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집대성 된 것으로 공신력 또한 인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옛그림에서는 조선시대의 정원 유적으로 화훼식물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 궁궐 및 사대부 정원을 표현한 것으로 대표성을 띄는 것, 별서정원에 관한 표현이 상세하고, 우리주변의 산수자연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풍속도로써 자연현상 및 정원의 모습과 식물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것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8점, 정원도 6점, 민화 760점, 옛 그림 766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1 참조).

본 연구에서는 '화훼식물'을 관상공간에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꽃이 피는 관목(花)과 꽃이 피는 풀(卉)을 지피식물과 동일한 용어로 쓰고자 한다. ①화훼식물은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부류의 식물 소재로서 지표면을 덮는 한해살이와 여러해살이 및 구근, ②수목과 더불어 또는 하나의 독립된 식재단위로 사용될 경우에 1.5m이하의 것을 포함하고, 교·관목수종이라 하여도 1.5m미만의 것이 화계에 심겨질 경우, ③꽃뿐만 아니라 잎·줄기·뿌리·가지·열매·수형·향기 중 그 식물체의 일부가 관상적 가치를 지닌 식물로 정원에 식재되는 관목 및 초본류, ④식재 후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분얼 및 이식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식재 의도에 맞는 디자인 형태를 유지 할 수 경우의 내용을 화훼식물의 범위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²⁾.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분석과 도상분석을 통해 출현하는 식물을 판별하였다. 고문헌 분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8종류를 대상으로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이 진행 중인 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과 『고전번역총서(古典翻譯叢書)』의 자료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고문헌 기록 나타나는 수종명칭은 지역별, 인물별, 시대별 등에 따라 불리는 용어가 다르거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수종 명을 유추

가 불가능한 식물들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서지학적 측면의 한계를 감안하여 기록에 출현한 화훼식물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 내에서 출현수종명과 한자명을 병기(並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상분석은 정원도와 민화에 그려진 화훼식물을 육안으로 분별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문헌 및 도상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조선시대 고문헌과 옛 그림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의 출현 빈도를 표로 정리하여 주로 사용되었던 식물의 종류를 정리, 둘째, 문헌과 도상자료의 내용들을 통한 궁궐정원과 민가정원에서 이용되는 형태, 셋째, 사회·문화적 정신적 요소가 조선시대 화훼식물 사용에 미친 상징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학명과 국명은 환경부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지식정보시스템 기준, 한국의 민속식물(최영, 1991)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빈도분석

고문헌 및 정원도와 민화의 옛 그림에 나타난 화훼식물에 대한 분석은 고문헌에서 50종이 나타났으며, 옛 그림 중 정원도에서는 총 23종, 민화에서는 50종이 나타났다. 고문헌과 옛 그림에 나타난 총 출현 식물 종은 난초, 연, 매화, 국화, 모란, 작약, 장미, 파초, 창포, 포도, 철쭉, 석류, 유자, 치자, 봉선화, 원추리, 베고니아, 패랭이꽃, 옥잠화, 백일홍, 수선화, 무궁화, 접시꽃, 해바라기, 억새, 양귀비, 참나리, 황매화 등 총 29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문헌과 옛 그림에 나타난 지피식물들 중 수종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공통적으로 출현한 지피식물은 총 14분류군으로 난초, 연, 매화, 국화, 모란, 작약, 장미, 파초, 창포, 포도, 석류, 유자, 철쭉류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연구대상문헌 및 도판자료

유 형		연구 대상	
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궁궐지(宮闕志)』, 『사외당지(四宜堂志)』, 『양화소록(養花小錄)』, 『화암수록(花菴隨錄)』, 『지봉유설(芝峯類說)』, 『산림경제(山林經濟)』,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옛 그림	정원도	궁 궐	『동궐도(東闕圖)』
		사대부 주택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 『하환정도(何煥亭圖)』
		별 서	『소쇄원도(瀟灑園圖)』, 『옥호정도(玉壺亭圖)』,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
	민화	화훼도, 화조도, 화점도, 초충도, 어해도, 병풍도, 기명절지도, 평생도, 책거리도, 꽃꽂이 그림, 연회도, 서민 잔치, 동자도, 초상화, 김홍도 풍속도, 신윤복 풍속도, 오윤행실도, 진경산수화 등	

표 2. 고문헌 및 옛 그림에 출현한 화훼식물

유형		화 훼 식 물	
고문헌	목본류	개나리(連翹 <i>Forsythia koreana</i>), 능소화(凌霄花: <i>Campsis grandifolia</i>), 매화(梅: <i>Prunus mume</i>), 모란(牡丹: <i>Paeonia suffruticosa</i>), 무궁화(木槿花: <i>Hibiscus syriacus</i>), 백일홍(百日紅: <i>Lagerstroemia indica</i>), 불정화(佛頂花: <i>Viburnum opulus</i>), 서향화(瑞香: <i>Daphne odora</i>), 석류(石榴: <i>Punica granatum</i>), 앵두나무(櫻桃: <i>Prunus tomentosa</i>), 영산홍(映山紅: <i>Rhododendron indicum</i>), 영춘화(迎春花: <i>Jasminum nudiflorum</i>), 옥매화(玉梅: <i>Prunus glandulosa</i> for. <i>albiplena</i>), 유자(橘: <i>Citrus junos</i>), 인동초(忍冬草: <i>Lonicera japonica</i>), 장미류(薔薇: <i>Rosa</i> spp.), 정향(丁香: <i>Syringa velutina</i> var. <i>kamibayshii</i>), 진달래(杜鵑花: <i>Rhododendron mucronulatum</i>), 철쭉(躑躅: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치자나무(梔子: <i>Gardenia jasminoides</i>), 포도(葡萄: <i>Vitis vinifera</i>), 해당화(海棠: <i>Rosa rugosa</i>), 황매화(黃梅花: <i>Kerria japonica</i>), 회양목(黃楊木: <i>Buxus koreana</i>)	
	초본류	국화류(菊: <i>Chrysanthemum</i> spp.), 금전화(金錢花: <i>Calendula officinalis</i>), 난초류(蘭: <i>Cymbidium</i> spp.), 동자꽃(剪秋羅: <i>Lychnis cognata</i>), 맨드라미(雞冠花: <i>Celosia cristata</i>), 베고니아(秋海棠: <i>Begonia exansiana</i>), 봉선화(鳳仙花: <i>Impatiens balsamina</i>), 산단화(山丹花: <i>Ixora chinensis</i>), 석창포(石菖蒲: <i>Acorus gramineus</i>), 수선화(水仙花: <i>Narcissus tazetta</i>), 삼백초(三白草: <i>Saururus chinensis</i>), 양귀비(鴉粟花: <i>Papaver somniferum</i>), 연(蓮: <i>Nelumbo nucifera</i>), 옥잠화(玉簪花: <i>Hosta plantaginea</i>), 원추리(萱草: <i>Hemerocallis fulva</i>), 작약(芍藥: <i>Paeonia lactiflora</i>), 접시꽃(蜀葵花: <i>Althaea rosea</i>), 참나리(卷丹: <i>Lilium lancifolium</i>), 창포(菖蒲: <i>Acorus calamus</i>), 파초(芭蕉: <i>Musa basjoo</i>), 패랭이꽃(石竹: <i>Dianthus chinensis</i>), 환련(韓蓮: <i>Tropaeolum majus</i>), 해바라기(葵花: <i>Helianthus annuus</i>)	
옛그림	정원도	목본류	매화(梅: <i>Prunus mume</i>), 모란(牡丹: <i>Paeonia suffruticosa</i>), 석류(石榴: <i>Punica granatum</i>), 수국(水菊: <i>Hydrangea macrophylla</i>), 오미자(五味子: <i>Schisandra chinensis</i>), 유자(橘: <i>Citrus junos</i>), 장미류(薔薇: <i>Rosa</i> spp.), 차나무(茶: <i>Thea sinensis</i>), 철쭉(躑躅: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치자나무(梔子: <i>Gardenia jasminoides</i>), 포도(葡萄: <i>Vitis vinifera</i>), 황매화(黃梅花: <i>Kerria japonica</i>)
		초본류	국화류(菊: <i>Chrysanthemum</i> spp.), 난초류(蘭: <i>Cymbidium</i> spp.), 미나리(芹: <i>Oenanthe javanica</i>), 순채(蓴菜: <i>Brasenia schreberi</i>), 연(蓮: <i>Nelumbo nucifera</i>), 작약(芍藥: <i>Paeonia lactiflora</i>), 지초(芝草: <i>Lithospermum erythrorhizon</i>), 창포(菖蒲: <i>Acorus calamus</i>), 파초(芭蕉: <i>Musa basjoo</i>), 해바라기(葵花: <i>Helianthus annuus</i>)
	민화	목본류	남천(南天: <i>Nandina domestica</i>), 등나무(<i>Wisteria floribunda</i>), 명자꽃(<i>Chaenomeles lagenaria</i>), 모란(<i>Paeonia suffruticosa</i>), 매화(<i>Prunus mume</i>), 무궁화(<i>Hibiscus syriacus</i>), 백일홍(<i>Zinnia elegans</i>), 석류(石榴: <i>Punica granatum</i>), 수국(<i>Hydrangea macrophylla</i>), 유자(橘: <i>Citrus junos</i>), 장미류(薔薇: <i>Rosa</i> spp.), 진달래(杜鵑花: <i>Rhododendron mucronulatum</i>), 찔레(<i>Rosa multiflora</i>), 철쭉(躑躅: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포도(葡萄: <i>Vitis vinifera</i>)
		초본류	감국(甘菊: <i>Dendranthema indicum</i>), 국화류(菊: <i>Chrysanthemum</i> spp.), 금낭화(錦囊花: <i>Dicentra spectabilis</i>), 파리(<i>Physalis alkekengi</i>), 나팔꽃(<i>Pharbitis nil</i>), 난초류(蘭: <i>Cymbidium</i> spp.), 달개비(<i>Commelina communis</i>), 도라지(<i>Platycodon grandiflorum</i>), 맨드라미(<i>Celosia cristata</i>), 물레나물(<i>Hypericum ascyron</i>), 민들레(<i>Taraxacum platycarpum</i>), 범부채(<i>Belamcanda chinensis</i>), 베고니아(秋海棠: <i>Begonia evansiana</i>), 봉선화(鳳仙花: <i>Impatiens balsamina</i>), 붓꽃(<i>Iris sanguinea</i>), 수선화(水仙花: <i>Narcissus tazetta</i>), 수수(蜀黍: <i>Sorghum bicolor</i>), 수련류(<i>Nymphaea</i> spp.), 양귀비(楊貴妃: <i>Papaver somniferum</i>), 억새(<i>Miscanthus sinensis</i>), 여뀌(<i>Persicaria hydropiper</i>), 연(<i>Nelumbo nucifera</i>), 옥잠화(<i>Hosta plantaginea</i>), 용담(<i>Gentiana scabra</i>), 원추리(萱: <i>Hemerocallis fulva</i>), 접시꽃(蜀葵花: <i>Althaea rosea</i>), 질경이(<i>Plantago asiatica</i>), 참나리(<i>Lilium lancifolium</i>), 창포(菖蒲: <i>Acorus calamus</i>), 코스모스(<i>Cosmos bipinnatus</i>), 파초(芭蕉: <i>Musa basjoo</i>), 패랭이꽃(石竹: <i>Dianthus chinensis</i>), 해당화(海棠: <i>Rosa rugosa</i> Thunb) 작약(芍藥: <i>Paeonia lactiflora</i>)

* 식물의 국명은 < > 와 같다. 금동화<꽃무릇>, 정향<정향나무>, 금전화<금잔화>, 불정화<개미취>, 지초<지치>

** 옛 그림에 나타난 식물명은 환경부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의 민속식물(최영, 1991)기준으로 작성함

* 식물의 국명은 < >와 같다. 금동화<꽃무릇>, 정향<정향나무>, 금전화<금잔화>, 불정화<개미취>, 지초<지치>

** 옛 그림에 나타난 식물명은 환경부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의 민속식물(최영, 1991)기준으로 작성함

화훼도, 화조도, 산수화, 풍속도, 책거리도, 생활민속도 등 유형별 민화에 나타나는 화훼식물은 화조도 42점(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훼도 38점(31.1%), 책거리도 22점(18%)으로 나타나며, 식물별 출현빈도는 매화, 연, 모란, 국화, 장미, 석류, 찔레 순이었다. 민화에 많이 나타난 화훼식물은 매화가 15.2%, 연 13.4%, 모란 12.6%, 국화 12.4%, 장미 6.1%, 석류 4.9%, 찔레 4.4%, 진달래 3.9%, 파초 2.9% 원추리 2.3%, 패랭이꽃 2.2%, 수선화 2.0%, 유자 1.8%, 금낭화 1.5%로서 매화, 연, 모란, 국화, 장미 등이 주요 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헌, 정원도 및 민화의 옛 그림에 나타난 78종 화훼식물의 출현빈도를 고찰해 본 결과, 매화가 16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과 모란이 14회, 국화와 파초가 13회, 장미가 12회, 진달래 11회, 작약이 10회 등의 순위였다. 그 다음은 치자, 석류가 8

회, 난초, 패랭이, 포도, 영산홍이 7회, 정향, 봉선화, 원추리, 맨드라미, 무궁화가 6회씩 출현 하였고, 5회 나타난 경우는 철쭉, 창포, 접시꽃, 황매화 등 6종이었다. 그리고 4회 나타난 경우는 부용, 동자꽃, 금전화, 베고니아, 서향화, 옥잠화, 수선화, 해바라기, 양귀비, 유자 등 10종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사대부 주택이나 별서정원 등의 정원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화훼식물을 살펴보면 석류, 철쭉, 파초 등 채색이 화려한 식물과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등의 식물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대부들의 화훼취미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들에게 식물은 유교적 영향 하에 덕성 함양의 대상으로 보아 수신의 상징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상희, 1999). 다산초당 등에서는 해바라기, 포도, 미나리, 유자, 굴, 오미자, 순채 등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표 3. 옛 그림·고문헌에 나타난 화훼식물의 출현빈도(총괄표)

순서	화훼식물명	정 원 도						민 화						고 문 헌										계
		a	b	c	d	e	소계	f	g	h	i	j	k	소계	l	m	n	o	p	q	r	s	소계	
1	매화	○		○			2	○	○	○	○	○	○	6	○	○	○	○	○	○	○	○	8	16
2	모란				○	○	2	○	○	○	○	○	○	5	○	○	○	○	○	○	○	○	7	14
3	연	○		○			2	○	○	○	○	○	○	6		○		○	○	○	○	○	6	14
4	국화			○		○	2	○	○	○	○	○	○	5	○			○	○	○	○	○	6	13
5	파초			○	○	○	3	○	○	○	○	○	○	6				○	○	○	○	○	4	13
6	장미			○		○	2	○	○			○		3	○			○	○	○	○	○	7	12
7	진달래						-	○	○	○	○	○	○	6	○			○	○	○		○	5	11
8	작약				○	○	2	○	○			○		3	○			○	○		○	○	5	10
9	석류						1		○			○		2	○			○	○		○	○	5	8
10	치자나무			○		○	2							-	○			○	○	○	○	○	6	8
11	페랭이꽃						-	○	○			○		3				○	○	○	○	○	4	7
12	포도				○	○	2		○			○	○	3					○		○	○	2	7
13	영산홍						-							-	○			○	○	○	○	○	7	7
14	난초			○	○		2	○			○			2				○	○	○	○	○	2	6
15	맨드라미						-	○	○			○		3	○			○				○	3	6
16	무궁화						-	○	○			○		3				○	○			○	3	6
17	봉선화						-	○	○					1	○			○	○	○		○	5	6
18	원추리						-	○	○			○		3		○					○	○	3	6
19	정향						-							-	○			○	○		○	○	6	6
20	유자					○	1		○			○		2	○				○				2	5
21	접시꽃						-	○	○					2				○	○			○	3	5
22	창포			○			1	○	○			○		3					○				1	5
23	철쭉						-	○	○			○		3	○			○					2	5
24	황매화				○		1							-				○	○		○		4	5
25	금전화						-							-				○	○	○		○	4	4
26	동자꽃						-							-				○	○	○		○	4	4
27	배고니아						-	○	○					2				○				○	2	4
28	부용						-							-	○			○			○	○	4	4
29	서향화						-							-				○	○		○	○	4	4
30	수선화						-	○	○			○		3							○	○	1	4
31	양귀비						-	○	○					2	○							○	2	4
32	옥잠화						-	○						1				○	○			○	3	4
33	해당화						-							-				○	○		○	○	4	4
34	해바라기				○		1							-	○						○	○	3	4
35	백일홍						-	○						1				○	○				2	3
36	산단화						-							-				○	○			○	3	3
37	영두						-							-	○				○				3	3
38	철레						-	○	○			○		3									-	3
39	참나리						-	○	○					2								○	1	3
40	금낭화						-	○	○					2									-	2
41	남천						-	○	○					2									-	2
42	달개비						-	○	○					2									-	2
43	도라지						-	○	○					2									-	2
44	등나무꽃						-		○			○		2									-	2
45	만들레						-	○	○					2									-	2
46	붓꽃						-	○	○					2									-	2
47	석창포						-							-							○	○	2	2
48	수국					○	1		○					1									-	2
49	옥매화						-							-	○			○					2	2
50	조릿대			○			1							-	○								1	2
51	회양목						-							-	○				○				2	2
52	감국						-	○						1									-	1
53	개나리						-							-				○					1	1
54	금동화						-							-				○					1	1
55	파리						-							1									-	1
56	나팔꽃						-	○						1									-	1
57	명자						-	○						1									-	1
58	물레나물						-		○					1									-	1
59	미나리				○		1							-									-	1
60	범부채						-		○					1									-	1
61	불정화						-							-				○					1	1
62	삼백초						-							-	○								1	1
63	수련						-		○					1									-	1
64	수련						-	○						1									-	1
65	순채			○			1							-									-	1
66	앵숙각						-							-				○					1	1
67	익새						-		○					1									-	1
68	여귀						-	○						1									-	1
69	영춘화						-							-							○		1	1
70	오미자				○		1							-									-	1
71	용담						-	○						1									-	1
72	인동초						-							-				○					1	1
73	지초				○		1							-									-	1
74	질경이						-	○						1									-	1
75	차나무				○		1							-									-	1
76	코스모스						-	○						1									-	1
77	한련						-							-								○	1	1
78	해당화						-	○						1									-	1
합계		2	0	11	6	16	35	41	36	6	7	22	7	119	22	3	15	29	27	9	21	35	161	326

*고문헌 및 옛 그림 범례: a.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 b. 「하환정도(何煥亭圖)」, c. 「소쇄원도(蘇澗園圖)」, d. 「옥호정도(玉壺亭圖)」, e.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 f. 화훼도, g. 화조도, h. 산수화, i. 풍속도, j. 책거리도, k. 생활민화도, l.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m. 『궁궐지(宮闕志)」, n. 『사의당지(四宜當志)」, o. 『양화소록(養花小錄)」, p. 『화암수록(花菴隨錄)」, q. 『지봉유설(芝峯類說)」, r. 『산림경제(山林經濟)」, s.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식물로 채원과 과원을 꾸미었던 것으로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정원에서 사람의 실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식재하는 실용원의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민화는 화훼도, 화조도, 어해도, 진귀한 그릇과 화초를 함께 그린 기명절지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귀비, 봉선화, 옥잠화, 수선화, 금낭화, 맨드라미, 원추리, 강아지풀, 민들레, 감국, 여뀌, 패랭이꽃, 금낭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장식화이며 생활미술로서 또한 사대부나 부유층에서도 특히 여인들이 감상하고 소유했던 병풍 등의 생활민화 형태가 주였으며, 그림은 주로 서민층이 그림으로써 사대부와 서민층의 공통된 취향의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2.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

조선시대 화훼식물은 각 식물이 가지는 특성이나 정원을 조성하는 개인적인 취향 등에 따라 그 이용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궁궐정원과 민가정원을 대상으로 사료의 유추가 가능한 고문헌과 옛 그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먼저 조선왕조실록과 궁궐지를 통해 본 궁궐정원에서의 이용 형태에서는 분(盆)에 식재하는 경우, 후원에 화계를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식재하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된 화훼식물의 종류는 영산홍, 모란, 작약의 출현 기록이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석류, 앵두, 매화, 삼백초, 사계화, 두견화, 연꽃, 국화,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화훼식물 종류별 이용형태는 영산홍은 후원에 식재하거나 분에 심어 이용했으며, 작약과 두견화는 건축물 주변에 식재하였고 모란, 작약, 석류, 앵두, 매화, 삼백초, 사계화 등은 분에 심어 이용하거나 후원에 식재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a. 창순루 주변 b. 수정전 화오 c. 자경전 주변

그림 1. 궁궐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의 모습

민가정원의 이용에 대한 자료는 고문헌 외에도 대중적인 성격의 다양한 민화를 통해서 이용에 관련된 내용분석이 가능하였다. 민가정원 이용 역시 분이나 화단형태에 식물을 식재하였으며, 마당에 괴석과 화훼식물을 함께 놓는 경우와 수변공간에도 화훼식물을 이용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울타리나 담장 밑에 화훼식물을 식재하고 건축물 주변에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된 화훼식물의 종류로는 파초, 매화,

모란, 작약, 석류, 창포, 사계화, 국화, 명자꽃, 황매화 등이 이용되었다. 종류별 이용형태는 파초, 매화, 모란, 작약, 황매화, 명자꽃은 마당과 분에 식재하였고, 수변공간에 창포와 작약을 심고 울타리와 담장 밑에 국화종류를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화를 통해 몇몇 이용사례를 살펴보면 괴석을 놓고 주변에 붉은 나리를 식재하고, 작약과 난을 분에 심어 마당에 놓거나 담장아래 심어서 관상하거나, 화분장식을 이용하여 국화, 수선화, 매화, 국화 등으로 계절감을 표현하는 이용방법들의 확인이 가능하였다(그림 2 참조).

a. 옥호정도의 사랑마당

b. 소쇄원도의 매대(梅臺)

그림 2. 사대부 주택, 별서정원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의 모습

정선의 진경산수화,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도, 오윤행실도 등 산수화와 풍속도에는 그 당시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생활감을 더하여 주는데, 자주 등장하는 지피식물은 모란, 연, 매화, 국화, 파초 등이었으며, 이것은 인위적으로 식재가 가능하였던 외부공간에 나타나는 형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민화는 화훼도, 화조도, 어해도, 진귀한 그릇과 화초를 함께 그린 기명절지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귀비, 봉선화, 옥잠화, 수선화, 금낭화, 맨드라미, 원추리, 강아지풀, 민들레, 감국, 여뀌, 패랭이꽃, 금낭화 등 화초류의 지피식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여인들이 보고 소유했던 병풍 등의 생활민화 형태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생활 민속도의 일종인 책거리도는 병풍도형식으로 그렸으며, 그 당시 진귀한 기물과 상징적인 꽃의 묘사 등으로 서양의 그림과는 또 다른 사실감을 주면서, 당시 애용하였던 지피식물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3.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

『조선왕조실록』에서 식재기록이 있는 지피식물은 장미, 철쭉, 치자유자, 석류, 모란, 삼백초, 정향, 진달래, 앵두, 영산홍, 목부용, 회양목, 조릿대 등이었고, 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지피식물은 작약, 모란, 철쭉, 장미 등이었으며, 왕이 하사품으로 내렸다는 지피식물은 사계화, 석류꽃, 작약, 모란 등이 있으며, 화분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 지피식물은 석류, 모란, 작약, 황규, 황모란 등이었다. 또한 지피식물에 관한 기타 기록으로는

그림 3. 조선시대 옛 그림에 나타난 화훼식물 사례

봉선화의 이용법, 앵두수확, 영산홍의 재배, 관리 등이 언급되고 있어 지피식물의 식재, 완상, 재배 및 관리, 이용법 등 다양하게 기술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의당지』에서는 식재된 것으로 왜철쭉, 모란, 산단화, 황매화, 인동, 금등화, 불정화, 흰진달래, 정향, 금죽 등이 있었고, 분재형태로 있었던 것은 월계화, 사계화, 거상화, 전춘라, 금전화, 베고니아, 매화, 영산홍 등이 있었다. 이는 사대부 양반 계층집의 지피식물 활용 기록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암수록』은 매화, 국화, 연꽃, 모란, 작약, 왜홍, 해류, 석류, 서향화, 치자, 해당화, 장미, 패랭이꽃, 옥잠화, 전추사 등의 지피식물을 화목구등품제로 나누고, 식물의 특징과 인상을 상징적인 언어로 명확하고 재미있게 풀어쓰으로써 작자의 꽃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을 고찰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봉유설』에서 지피식물은 매화, 황매, 모란, 장미, 연, 국화, 치자, 영산홍, 백목단, 봉선화 등을 들어 설명했고, 산림경제에서는 난초, 연, 목부용, 치자화, 서향화, 석류, 장미, 해당화, 모란, 작약, 해바라기, 패랭이꽃, 원추리, 파초, 석창포 등 다양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서는 서향화, 목부용, 진달래, 영산홍, 영춘화, 무궁화, 치자, 해당화, 장미, 난초, 국화, 작약, 연, 수선화, 옥잠화, 원추리, 접시꽃, 해바라기, 봉선화, 양귀비, 동자꽃, 맨드라미, 모란, 베고니아, 패랭이꽃 등 37종의 지피식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경제지』 정조지에는 설명하는 전병에 관한 내용 중에는 “참쌀가루·수숫가루·울무가루 등을 등글게 만들어 팔소를 넣고 접어서 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전병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중의 몇 가지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가을에는 감국잎·국화꽃, 여름에는 장미꽃·맨드라미꽃 등을 쓰며, 꽃이 없을 때에는 대추·석이·밤 등을 곱게 채썰어 꽃을 대신하기도 한다.”

하고 있어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로 장미와 맨드라미를 식용으로 활용하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희안의 화목구품과 유박의 화목구등품제를 비교해볼 때, 강희안은 지피식물 중 1등품으로 연, 국화, 매화, 2등품은 모란, 3등품은 장미, 영산홍, 석류 등을 들었고, 유박은 1등품으로 매화, 국화, 연, 대나무, 2등품으로 모란, 작약, 해류, 파초 3등품으로 치자, 장미를 들어 비슷하게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일본수종인 영산홍이 외래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조선시대 지피식물의 이름은 현대의 이름과 달리 다양하게 불리어 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장미는 월계화, 사계화, 소사계화 등 10가지로 국화는 황국화, 백국화, 불정화, 불두국 등 20여 가지로, 작약은 화상, 금사낙약홍 등 5가지이며, 원추리는 의남초, 망우초 등 4가지로 접시꽃은 측규화, 규화 등 5가지로 다양하게 불려졌다. 동자꽃은 전추라, 전춘라, 전홍라, 전추사 등의 4가지, 금불초는 자오화, 금전화 등 5가지, 양귀비는 액숙, 미나화, 우미인초로 양귀비 껍질은 앵숙각 양귀비씨는 앵숙자라 하며, 창포는 양화소록에선 창잠이라 하였으며, 석창포는 창양, 수창포, 석창 등 8가지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백합은 산단화, 연주, 홍백합 등 8가지로, 지초는 지치라 하며, 범부채는 사간, 포도는 초롱, 흑마유 등 4가지로, 석류화는 품종이 많아 품종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여러 가지였으며, 개나리는 연교화(連翹花), 철쭉은 척촉화(躑躅花), 영산홍은 일본척촉화, 왜척촉 등 5가지로 무궁화는 목근(木槿), 소철은 철초(鐵蕉), 수국은 수구, 팔선화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문헌에 나타난 화훼식물의 이름

화훼명	옛 이름
연(蓮) ³⁾	연하(連荷) · 하(荷) · 부거(芙蓉) · 함담(菡萏) · 뇌지(雷芝) · 만다라화(曼陀羅華) · 수단화(水丹花) · 하화(荷花) · 부용(芙蓉) · 염거(廉車) · 우화(藕花)
장미류(薔薇) ⁴⁾	월계화(月桂花) · 사계화(四桂花) · 소사계화(小四桂花) · 백사계화(白四桂花) · 월월홍(月月紅) · 월개화(月開花) · 승춘(勝春) · 수객(瘦客) · 투설홍(鬪雪紅) · 청간사계(靑竿四季) · 보장화(寶蔕花) · 월계홍(月桂紅) · 월계화(月季花) · 사계화(四季花) · 매괴화(玫瑰花)
국화(菊花)	황국화(黃菊花) · 백국화(白菊花) · 불정화(佛頂花) · 불두국(佛頭菊) · 관음국(觀音菊) · 황화(黃花) · 태장(苔薔) · 일정(日精) · 주영(周盈) · 전연년(傳延年) · 절화(節花) · 여절(女節) · 여화(女華) · 여경(女莖) · 갱생(更生) · 음성(陰成) · 금원황(禁苑黃) · 취양비(醉楊妃) · 황백학령(黃白鶴翎), 감국(甘菊) · 가품(佳品) · 가색(佳色) · 동리가색(東籬佳色), 그 외 이옥의 백운필(白雲筆) ⁵⁾ · 취양비(醉楊妃) · 금원황(禁苑黃) · 삼색학령(三色鶴翎) · 통주황(通州黃) · 연경백(燕京白) · 대설백(待雪白) · 소설백(笑雪白) · 오홍(烏紅) · 강성황(江城黃)
작약(芍藥)	작약(芍藥) · 화상(花相) · 금사낙약홍(金絲洛陽紅) · 천엽백(千葉白) · 천엽순홍(千葉純紅) · 함박꽃
패랭이꽃	석죽화(石竹花) · 구맥(瞿麥)
해바라기	황규(黃葵) · 황규자(黃葵子) : 해바라기씨 · 향일규(向日葵)
개나리	연교화(連翹花)
황매화(黃梅花)	출장화(黽牆花) · 죽도화(竹桃花) · 죽단화(竹丹花) · 죽매화(竹梅花) · 수중화(水仲花) · 어류화(御留花)
접시꽃(蜀葵花) ⁶⁾	규화(葵花) · 숙근초(宿根草) · 일장홍(一丈紅) · 촉규화(蜀葵花) · 층층화(層層花) · 덕두화(德頭花)
맨드라미	계관화(鷄冠花) · 청상자(靑箱子) : 맨드라미씨
동자꽃(剪春羅) ⁷⁾	전추라(剪秋羅) · 전춘라(剪春羅) · 전홍라(剪紅羅) · 전추사(剪秋紗)
원추리(萱)	망우초(忘憂草) · 의남초(宜男草) · 금원(金萱) · 원(萱)
금불초(金佛草)	자오화(子午花) · 금전화(金錢花) · 금비초(金沸草) · 하국(夏菊) · 황숙화(黃熟花)
금전화	금전홍(錦剪紅) · 금전화(錦剪花)
양귀비(楊貴妃)	앵속자(罌粟子) : 양귀비씨 · 앵속(罌粟) · 앵속각(罌粟殼) : 양귀비꽃 겹질 · 미낭화(米囊花) · 우미인초(虞美人草)
베고니아	추해당(秋海棠) · 팔월춘(八月春) · 단장화(斷腸花)
창포(菖蒲)	창잠(菖歎) · 요구(堯韭)
석창포(石菖蒲)	창양(昌陽) · 수창포(水菖蒲) · 석창(石菖) · 돌창포 수검초(水劍草) · 창본(昌本) · 창초(昌草) · 창촉(昌歎)
한련화	한련(旱蓮) · 금련(金蓮)
백합(百合)	산단화(山丹花) · 연주(連珠) · 홍백합(紅百合) · 비선꽃 · 각시꽃 · 아기씨꽃 · 길상초(吉祥草) · 물보(物譜) ⁸⁾ · 권단(權丹) · 나리 · 당개나리 · 야백합 · 중상 · 심산단 · 가백합
지초(芝草)	다산화사-지치 · 그 외에 구릿대 · 영지
범부채	사간(射干) · 편죽(扁竹)
포도	초롱(草籠) · 흑마유(黑馬乳) · 자마유(紫馬乳) · 청마유(靑馬乳) · 청포도(靑葡萄)
석류화(石榴花) ⁹⁾	석류화(石榴花) · 안석류(安石榴) · 단약(丹若) · 약류목(若榴木) · 삼시주(三尸酒) · 수정석류(水晶石榴) · 안석류(安石榴) · 백엽류(百葉榴) · 화석류(花石榴) · 홍화백연(紅花百緣) · 왜류(倭榴) · 나류(羅榴) · 수정류(水晶榴) · 해류(海榴)
정향(丁香)	정향(丁香) · 세발사향 · 정자향(丁子香) · 정자향(丁字香) 정향(庭香)
파초(芭蕉) ¹⁰⁾	양우(仰友) · 초왕(草王) · 녹천(綠天) · 파초(芭蕉)
철쭉(躑躅)	척촉화(躑躅花) · 양철쭉(洋躑躅) · 산철쭉(山躑躅)
영산홍(映山紅)	일본척촉화(日本躑躅花) · 왜홍(倭紅) · 영산백(映山白) · 왜철쭉 · 왜척촉(倭躑躅) · 일본철쭉(倭躑躅)
무궁화(無窮花)	목근(木槿) · 조개모락화(朝開暮落花) · 근화초(董華草) · 근화향(槿花鄉) · 훈화초(薰華草) : 중국고대문헌 산해경 · 순(舜)

3. 고문헌을 통해 나타나는 화훼식물에 대한 인식

문헌을 통해 나타난 선조들의 화훼식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매화에 관한 인식에서는 양화소록과 지봉유설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화소록에서는 범석호의(매보) 서문을 이용하여 “천하에 으뜸가는 꽃으로 매화는 운치가 좋고 품격이 고상하다, 줄기가 구불구불 틀리고 가지가 성글고 야윈 것과 늙은 가지가 괴기하게 생긴 것이 더욱 진귀하다.”라고 하였으며, 화암수록에서는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를 통해 높고 뛰어난 운치로 국화, 연꽃, 그리고 대나무와 함께 1품으로 취급되었다. “매화가 만화지상(萬花之上)인 ‘꽃의 정승’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화사한 꽃잎보다는 그윽한 향기 때문이다. 매화향은 헤프지 않다. 겨울을 견뎌낸 꽃답게 ‘가난하다고 해서 향기를 팔지도 않는다.’ 매화는 은일하는 선비다.”라 하여 만물이 생동하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표상으로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회자되며 사랑받아 왔다(신상섭과 노재현, 2009).

『양화소록』에서 난초를 “본디 훈초(薰草) 또는 혜초(蕙草)라 하였는데, 잎은 ‘혜(蕙)’이고 뿌리는 ‘훈(薰)’이라 하였다. 꽃은 언제나 이른 봄에 피지만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고결한 모습은 같다.”로 표현하면서 고결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화훼식물로 인식하였다.

연(蓮)은 강희안이나 유박의 화목구등품제 중 1품에 속하는 것으로 본래는 인도가 원산으로 불교와 관련이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영향으로 주돈이(周敦頤)의 『애연설』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양화소록』에 연이 진흙 속에서 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으며, 속이 소통하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는 점, 그리고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으며 우뚝 깨끗이 서있는 모습을 높이여 연을 ‘꽃 가운데 군자’라 하였다.

모란은 화왕, 백우금 이라고도 하며, 열우, 귀객으로 칭해졌으며, 강희안과 유박의 화목구등품제 중 2품에 속하며, 수나라 때부터 원예품으로 취급되었고 이때 화왕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유박이 “꽃이 커서 부귀를 혼자 누리고 또 혼자 우이(牛耳)¹¹⁾를 잡은 오묘 중의 제환공(齊桓公)¹²⁾과 같다.”고 한 것 역시 제환공이 오묘 중의 으뜸임을 볼 때 모란이 화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화(菊花)에 관한 인식은 『양화소록』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품을 기르는 좋은 약과 같은 것으로 국화에 다섯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동그란 꽃송이가 높다랗게 달려 있음은 천극(天極)을 모양 한 것이요, 섞임이 없어 순수한 황색은 땅의 빛깔이요,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군자의 덕(德)이요, 서리를 이겨 뚫고 피움은 경직(勁直)한 기

상이요, 술잔에 동동 떠 있음은 신선의 음식이라 하였다.” 하여 군자, 열사, 일사로 비유되고¹³⁾, 장수의 상징¹⁴⁾, 도연명 읊었던 시 “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¹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뜰 안에 심어 보기를 즐겼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40여종이 있었는데, 황색을 정색으로 삼아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황색의 국화만 있으면 다른 종은 갖추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영산홍에 관한 내용 또한 『양화소록』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왕위에 오르신지 23년(세종대왕 재위 23(1441)년) 이 되던 봄에 일본국에서 철쭉 두어 분을 공물(貢物)로 보내오니 주상께서 명하시어 대궐에 안 뜰에 심게 하셨다. 왜철쭉과 영산홍은 가지와 잎, 꽃과 빛깔이 거의 비슷하다. 영산홍은 흰 꽃이 또한 귀하다. 당영산홍(唐淸山紅)과 당철쭉은 왜산(일본산)만 못하며, 꽃떨기가 몹시 크고, 밑동이 목직하고 겹꽃이어서 오래되어도 시들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철쭉과는 그 곱고 추함이 모모(嫋母)와 서시(西施)¹⁶⁾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철쭉에 대하여 극찬하였다.

문일평의 화하만필(花下漫筆)에 표현된 베고니아는 “그 성질이 그늘지고 습기 많은 곳을 좋아하며, 햇빛을 보면 시들고 깨끗한 것을 좋아 하여, 절대로 더러운 비료를 주면 안 된다. 서리가 내린 뒤에 그 뿌리를 캐서 얼지 않게 간직하였다가 2월에 심으면 더 좋다. 꽃보다 잎사귀가 한층 곱고 아름다우나 꽃과 잎의 자태가 모두 여리고 고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정민, 2005).”하였다. 또한 사의당지와 임원경제지에도 베고니아가 나타나며, 추해당(秋海棠)의 다른 이름은 팔월춘(八月春)과 단장화(斷腸花)가 있는데, 단장화란 빛깔이 고운 새색시 같고, 얼굴이 몹시 어여빠 애끓는 꽃이란 의미된다 할 수 있다.

석류는 본래 안석국(安石國,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¹⁷⁾에서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석류 또는 석류라 불렸으며, 종자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자손의 번영과 가수(嫁壽)¹⁸⁾라 하여 풍년이 든다고 한다. 석류를 유박은 적우, 박세당은 촌객이라 하였으며, 강희안의 화목구품 중 3품에, 유박의 화목구등품제 중 5등품에 속한다. 파초는 강희안의 화목구품 중 5품에 유박의 화목구등품제 중 2등품에 속하며, 유박은 파초를 양우(仰友)라 하였으며 초왕(草王)이라 하였다. 무궁화는 중국에서 군자지국(君子之國) 지방천리(地方千里) 다목군화(多木槿花)라 하였다. 조선을 근역(槿域)으로 불러 조선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조개모락화(朝開暮落花), 조화(朝華), 일급(日及)이라 불렸으며 인생의 무상함, 생(生)의 단명함을 상징하는 반면에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 무궁의 상징으로 자강부식(自強不息)하는 군자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미는 산극(山棘), 오극(牛棘), 자화(刺花)라고도 하며, 유박은 장미를 아리답고 아담하여 시인의

표 5.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상징성

식물명	상징성	추가설명
연	고결함, 다남(多男), 불교적 지혜, 음양화합, 군자	모란이 꽃 중의 왕이라면 연꽃은 꽃 중의 군자.
모란	부귀, 봄, 부귀영화, 명예, 부부애, 여성미, 번영, 부귀안락, 남녀화합	삼국유사에도 모란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이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음을 알 수 있음. 흔히 때 병풍의 그림.
매화	절개, 지조, 기개, 지조, 충신, 봄	〈양화소록〉 화목구품(花木九品)중 1품. (천하에 으뜸가는 꽃).
국화	10월, 가을, 기쁨, 안거, 고결한 지조, 곧은 절개	공직에서 은퇴한 선비가 한가하게 노니는 것. 장수를 뜻하기도 함.
난초	고결한 지조, 곧은 절개, 군자, 고고함, 귀녀	난초는 여성적으로 특히 명문가의 귀한 여성에 비유되며, 공자의 도와 비유됨.
석류	다산, 자손번성, 대길	뜰 앞에 심으면 현자가 나오고 대길 한다.
무궁화	조선(朝鮮), 단명(短命), 무궁(無窮), 군자의 이상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조개모락화(朝開暮落花), 조화(朝華), 일급(日及)이라 불렸음
장포	깨끗함	깨끗함을 상징해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포도나무	단결, 자손번식, 신선이 먹는 음식, 복(福), 청춘, 생명, 불사, 영원	민족과 일가친척의 단결.
해당화	아름다운 여성	중국 사람들은 꽃 중의 신선.
진달래	봄, 두견화	꽃 색깔이 붉은 것이 두견새가 밤새 울어 피를 토한 것 같다는 전설로 인하여 두견화.
해바라기	충신	해를 따라 돈다고 하여 충신에 비유.
접시꽃	충신, 무당, 승진	잎이 해를 향하여 움직임, 식물의 키가 크고 염려(艷麗), 꽃이 아래에서 위로 피는 모습으로 차례로 승진한다 함.
석류	다산	열매의 씨앗이 많음.
원추리	의남초	꽃봉오리가 어린 사내아이 고추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아내와 같은 꽃이라 하였다. 문일평 역시 장미의 아름다움은 화왕의 비가 될 만하다 하였으니 향염(香艷)이 뛰어나 가히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하였다. 진달래 즉, 두견화는 시우(時友)라 하였는데 이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기 때문이다. 철쭉은 산객(山客)이라 칭했는데 산속 깊이 야생하기 때문이다. 척촉(躑躅)이란 뜻은 본래 걸음을 머뭇거리는 모양으로 양이 철쭉꽃을 먹으면 비틀거리다가 죽으므로 이 꽃만 보아도 머뭇거리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까지 고문헌을 통해 상징성을 살펴본 결과 9분류군의 화훼식물에 대해 절개, 군자, 충효, 신선사상, 불로장생, 부귀영화, 만사형통의 기원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외희(1986: 29~49)와 배상선, 심우경 (1989: 281~313), 박혜성(2008), 이승훈(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문헌과 민화에 나타나는 화훼식물의 상징성을 정리하였다(표 5 참조).

5. 소 결

초화류 및 관상가치가 큰 1.5m 미만의 관목의 범위의 식물을 '조선시대의 화훼식물'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조선시대 고문헌과 옛 그림을 통해 정원에 식재된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고문헌 8점과 옛 그림 766점에서 나타난 화훼식물은 매화, 대나무, 연꽃, 모란, 국화, 파초, 장미, 진달래, 작약 등이 16회에서 9회 사이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비교적 출현 빈도가 높은 화훼식물은 치자, 석류(8회), 영산홍,

패랭이꽃, 포도(7회), 난초, 정향, 봉선화, 원추리, 맨드라미, 무궁화, 철쭉류, 창포, 접시꽃, 황매화, 유자(5회), 부용, 동자꽃, 금전화, 베고니아, 해바라기, 양귀비, 수선화, 서향화, 옥잠화 등(4회)이었으며, 그 외 나타난 화훼식물은 29분류군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참조).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형태는 궁궐정원에 이용되던 여러 수종들 중에서 영산홍, 모란, 작약, 석류의 기록이 많이 출현한 것에서 즐겨 이용했음을 유추할 있다. 또한 민가정원과는 다르게 영산홍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왕이 아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며, 화목구품·화목구등품제에서도 높은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된 민화에서는 표현되어진 기록이 없어 영산홍이 궁궐정원과 대중에게 유통되는 수요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민가정원에 식재하였던 화훼식물에 대해서는 파초가 민가정원에 즐겨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마당에 성상인 큰 고목식재를 피하는 대신 파초와 모란 등을 식재하였으며, 화훼식물을 괴석과 같이 이용하여 축소된 자연경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변공간의 이용에서 창포를 이용한 것은 뛰어난 원예지식을 바탕으로 창포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후원이나 화단 외에 분을 이용하여 매화, 모란, 난초, 석류, 파초 등의 화훼식물을 식재하여 완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상징성에 대한 내용은 매화, 모란, 국화, 군자로 비유되는 연이 모두 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조선시대가 유교적인 규범을 상징하거나 선비들의 한정(閑情)이

IV. 결론

넷째, 조선시대 화훼식물은 상징성은 유교의 절개, 군자, 청빈, 충효사상을 나타낸 경우, 도교의 신선사상이나 불교장생을 나타내는 경우, 민간신앙의 부귀영하나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화훼식물은 선비가 닮고 싶은 이상과 지향하는 정신세계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선조들의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상징성’이란 본질을 통찰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에 의한 것으로 조선시대 화훼식물

은 수중에 따른 판단기준의 문제가 아닌 다양하고 주관적이며 공통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 조선시대 화훼식물이 갖는 상징성을 부각함으로써 조경공간을 조성 할 때에 활용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영산홍은 원산이 외래종이나 권위와 화려함을 표출하는 식물로서 왕들이 선호했고, 품격 있는 수종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하여 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무나 지피식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선호했던 우리 풍토에 맞는 특성 있는 외래식물의 활용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 서향화, 목부용, 진달래, 일본철쭉, 영산홍, 영춘화, 무궁화, 치자, 해당화, 장미, 난초, 국화, 작약, 연, 수선화, 옥잠화, 원추리, 접시꽃, 해바라기, 봉선화, 양귀비, 동자꽃, 맨드라미, 모란, 베고니아, 패랭이꽃 등 37종의 지피식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지피식물을 다룬 귀중한 사료로서 여기에서 다룬 지피식물의 특징, 재배기법, 식재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옛 그림을 바탕으로 당시 화훼식물의 이용형태와 상징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자생하는 화훼식물을 이용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고문헌과 옛 그림에 등장하는 화훼식물의 사용에 있어서 조선시대 문화재 조경공간을 복원할 때에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조경공간에 보급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존하는 고문헌 및 옛 그림의 사료가 부족하고 선정된 자료의 조건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이용되었던 화훼식물에 대한 준거를 밝혀냈다는데 의의를 두며, 보다 정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주 1) 화훼식물의 개념은 대부분 수고와 생육형태 그리고 이용의 측면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화훼식물은 다양한 종류의 지표면을 조밀하게 피복할 수 있는 식물을 총칭하며, 화훼식물(Ground Cover Plants), 지피류(Ground Covers)라고도 한다. 현재 화훼식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며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화훼식물의 개념은 수고와 생육형태, 이용특면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초장이 짧고 상록성 식물만을 지피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사용해왔던 관상의 대상이 되며 꽃이 피는 관목(花)과 꽃이 피는 풀(卉)을 화훼식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로 “화훼”란 용어의 의미와 유래를 볼 때 중국문헌인 「군방보(群芳譜, 1630)」에서는 화부(花部)와 휘부(卉部)를 상대적으로 다루었고, 「비전화경(秘傳花鏡, 1688)」에서는 화목(花木)에 관상수목(觀賞樹木)을 포함시켜, 화(花)는 나무의 꽃이나 풀꽃을 가리키고, 휘(卉)는 초본(草本)의 총칭으로 쓰이다가 「사물이명(事物異名, 1748)」에서 비로소 화훼(花卉)라는 용어를 썼다. 한편, 일본에서는 「화보(畫報, 1694)」의 서문과 「사물이명류편(事物異名類編)」에서 비로소 화훼란 용어가 쓰였다. 화훼는 심미적으로 의지와 위안을 주는 식물로 화초뿐만 아니라 목본화훼도 이에 포함되며, 식물에서 관상가치가 큰 꽃뿐만 아니라 식물 그 자체의 잎·줄기·뿌리·가지·열매, 그리고 식물의 생육현상까지도 관상의 대상이 되므로 오늘날에는 관상식물(ornamental plants)이라 한다(방광자, 2009, 「지피식물학」, pp12-13, 김의영 외, 1998, 「화훼학총론」, pp17-18).

- 주 2) 화훼식물은 의도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숙근 화초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재 후 3년 주기로 분얼 및 이식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목의 경우는 수형 다듬기와 수세 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화훼식물에 대한 개념은 이용과 활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식물분류학적인 학술 개념이 아님을 밝혀둔다.
- 주 3) 연꽃은 궁궐지, 양화소록, 지봉유설에서 같은 하화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 주 4) 장미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용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 사의당지, 산림경제에선 월계화로, 양화소록과 화암수록에선 월개화로 한자(漢字)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선왕조실록, 사의당지, 양화소록, 화암수록에서 사계화로 나타났다.
- 주 5) 조선 후기의 학자 이옥(李錫, 1760~1815)이 남양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1803년(순조 3년)에 완성된 이 책은 이옥 자신의 견문과 느낌을 기록한 잡록(雜錄)으로서 새, 물고기, 짐승, 벌레, 꽃,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의 순서로 10개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 후기 농업과 관련된 저서인 「임원경제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당시 조선에서 재배하고 존재하였던 각종 조수초목(鳥獸草木)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필사본이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 주 6) 접시꽃은 양화소록, 임원경제지, 화하만필에서 축구화로 나타났으며, 화하만필에선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였다.
- 주 7) 양화소록, 화암수록, 임원경제지에서 전춘라라 하였으며, 사의당지, 양화소록, 화암수록 임원경제지에서 전춘라로, 화암수록에선 전추사로 나타났다. 봄에 핀다하여 전춘라 가을에 핀다하여 전추라 한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됨.
- 주 8) 조선 후기의 학자 이가환(李嘉煥, 1722~1779), 재위(載威, 1745~1826) 부자가 엮은 어휘집으로 박물사전격의 책으로 정원식물에 관한 것은 초목부 화훼편에 실려 있다.
- 주 9) 석류는 조선왕조실록, 양화소록, 화암수록에서 나타났으며, 숙종과 다산이 애용 하였으며, 양화소록에서 품종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다.
- 주 10) 파초는 일기 아름다워 예로부터 화초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는데, 강희한의 저서인 「양화소록」에서는 파초를 양우(仰友)초왕(草王)·녹천(綠天)으로 부르고 2품에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주 11) 우이는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으로 옛날 제후(諸侯)들이 모여 맹세할 때 그 모임의 맹주 되는 이가 소의 귀를 베어 그 피를 맛보면서 맹세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말임(출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p.4670).
- 주 12) 제환공(齊桓公)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제16대 군주, 성은 강(姜), 휘는 소백(小白), 시호는 환공(桓公), 춘추 시대의 패자이다. 포숙아의 활약에 의해 공자 규와의 공위계승 싸움 승리해, 관중을 재상으로 해 제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실권을 잃어버린 중국 동주 왕조의 후반기에 대신해 회맹을 거행함.(김영수, 2008, 「난세에 답하다」, 알라. 내용중 재구성).
- 주 13) 가을이 되면 모든 초목이 시들고 죽는데 오직 국화만이 홀로 서리와 바람 속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국화를 일우, 절우라 하는 것 바로 생리적 특성에 연유된 것임.
- 주 14) 남송 4대가 중 한 명인 양만리는 “국화를 먹으면 그 공효를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였으며, 《이아(爾雅)》에는 “국화를 다른 말로 태장(苔薺)이라 하고 일정(日精)이라고 부른다. 또한 주영(周盈), 전연년(傳延年)이라고도 한다. 줄기가 붉고 맛이 감미로운 것을 골라 먹으면 능히 장수한다.”고 함.
- 주 15) ‘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은 도연명(陶淵明) 읍주(飲酒)라 시문중의 내용으로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꽃을 따면서 느긋하게(고개 들어) 남쪽 산을 바라본다.’는 내용으로, 예로부터 국화는 울타리를 아름답게 하는 꽃으로 불리움.
- 주 16) 모모(嫫母)는 황제의 넷째 비(妃)로 심한 추녀지만 현철한 덕망으로 유명하였고, 추녀의 대명사로 쓰이며, 서시(西施)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녀이다.
- 주 17) 안석국(安石國)은 나라이름으로 즉 도림안석국(塗林安石國)을 줄여서 도림(塗林)이라고 하며, 류(榴)는 이란어의 음역(音譯)으로

소립(小粒)이라는 뜻으로 석류 종자의 모양을 말함.(강희안 지음. 이병훈. 2000. 『양화소록』. (주)을유문화사. p83).

- 주 18) '나무시집보내기'라고도하며 그해에 과일이 많이 열리도록 과일 나무의 두 가지 틈에 돌을 끼워 두는 풍속으로 음력 초하룻날 또는 보름날에 행하던 풍속임(출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p1092).

인용문헌

1. 강희안 지음, 서유희·이정록 옮김(1999). 『양화소록』. 서울: 놀와출판사.
2. 강희안 지음, 이병훈 옮김(2000). 『양화소록』. 서울: 을유문화사.
3. 경기대학교 박물관(2000). 『한국민화도록(韓國民畫圖錄)①』.
4. 고려대학교 박물관(2007). 『고려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록』.
5. 고연희(2008). 『꽃과 새 선비의 마음』. 보림.
6. 국립민속박물관(2005). 『민화와 장식병풍』.
7. 국립중앙박물관(1990). 『단원 김홍도』.
8. 궁중 유물 전시관 자료 4집(1996). 『조선 궁중 繪畫: 조선 왕실 그림』.
9. 김규섭, 이재근(2014).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정원조형 연구. 32(1): 22-30.
10. 김미옥(2009). 조선시대 지피식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김영수(2008). 「난세에 답하다」. 경기: 알마출판사.
12. 노송호, 박승자, 심우경(2006). 향교 및 서원의 공간별 상징수목과 배치 유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1-12.
13. 신상섭(2011).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19-27.
14. 신상섭, 노재현(2009). 지봉유설(芝峯類說)로 본 이수광(李守光)의 조경식물 인식 및 가치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1-10.
15. 배상선, 심우경(1989). 조경 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 281-313.
16. 배상선(1990). 조경 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박혜성(2008). 조선시대 전통회화와 민화에 나타난 식물류 및 모란도의 색채와 조형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이상희(1999). 우리 꽃문화 답사기, 도서출판 넥서스, 서울.
19. 이승훈(2000).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조경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선(2006). 한국 전통 조경 식재: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30-31.
21. 이외희(1986). 조선시대의 주요 조경 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49.
22. 이원호(2005).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조영된 한국정원 설계의 전환기적 양상에 관한 연구. 1-5.
23. 정 민(2003). <花庵九曲>의 작가 柳環(1730~1787)과, 『花庵隨錄』. 한국시가연구. 14: 101-133.
24. 조선왕조실록 <http://www.sillok.history.go.kr/>
25. 산림청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forest.go.kr/>
26.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27.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원 고 접 수 일: 2012년 5월 07일

심 사 일: 2012년 6월 01일(1차)

2012년 8월 21일(2차)

2014년 6월 15일(3차)

2014년 6월 24일(4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6월 24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